영암의 매력적인 맛, 롯데백화점에 런칭하다

영암매력한우, 13일까지 노원점 · 평촌점서 할인행사

다양한 소비자 확보 통해 유통시장 경쟁력 강화 계획

지난해 7월 롯데슈퍼 런칭을 시작으로 브랜드 유통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은 영암매력한우가 8월 7일, 롯데백화점에 런칭하여 브랜드한우의 선도주자임을 다시금 입증시켰다.

이번 런칭을 기념하고자 이달 13일까지 7일간 롯데백화점 노원점, 평촌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여 영암의 매력적인 한우의 맛을 다양한 소비층에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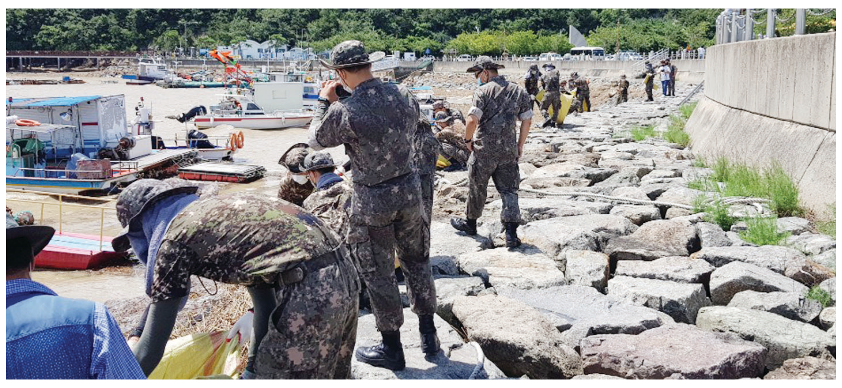
행사 첫날,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한 영암군의회 노영미 부의장 및 고천수 경제건설위원장, 영암낭주농협장 및 매력한우법인 관계자 등 20여명이 롯데백화점 노원점 행사장을 방문하여 런칭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를 빛냈다.

영암매력한우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농식품부장관상 등을 다수 수상하며 품질로서 이미 인정받아 왔으며, 지난해기준 1+이상 고급육 출현율 '전국 1위'를 차지한 대표적인 명품 한우이다.

앞으로 매력한우 브랜드경영체인 영암낭주농협은 국내외적으로 핵심 유통망을 구축한 벤더업체인 CY글로벌과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롯데슈퍼 입점에 이은 롯데백화점 런칭을 시작으로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를 통해 유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백화점 런칭을 통해 대한민국 톱클래스 브랜드라 자부하는 우리군의 우수한 한우를 다양한 소비층에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 " 며, "앞으로 유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산물 뿐아니라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에 구슬땀

청소 선박 3척 · 70여명 투입 평화광장 대대적 수거

목포시가 전남 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영산강 상류지역에서 밀려든 해양쓰레기 수거에 휴일도 반납한 채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밀려든 각종 수초 및 목재 등 해양쓰레기가 영산호 수위조절을 위한 영산강 하구둑 배수갑문 개방으로 목포시 평화광장 해안가를 뒤덮었다.

이에 시는 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군부대와 함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수거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는 이번 수거 작업에 해양쓰레기 청소선박 3척과 군부대 인력 및 시 청소인력 70여명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거활동을 전개하여, 총 5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함평천지농협, 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전국 1위'

사무소 및 개인부분 종합대상…박성희 과장 개인 1위

함평 천지농협(조합장 정태연)이 2019년 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선발에서 사무소 및 개인부분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등 관계자 40여명이 농 · 축협을 직접 방문 전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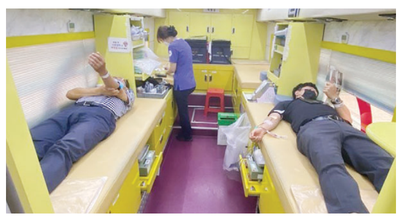
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은 2012년부터 매년 우수 사무소와 개인 부분을 선발하고 있으며,이번 시상식에서 함평 천지농협은 사무소 부분 대상과 개인 부분에서 염다지점 박성희 과장이 대상으로 종합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개인 1위를 차지한 박성희 과장은 2001년 천지농협에 입사하여 2012년 동상 2013 · 2015 · 2016년 은상, 2014년 특별공로상과 2017 · 2018년 금상 등 8년 연속 수상으로 2019년 손해보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영광을 안았다.

1위의 영예를 안은 박성희 과장은 " '진실과 소통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좌우명과 함께 '고객과 조합원들에게 더 사랑받는 내 일을 만들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 오늘의 영예를 안았다"고 말하며 "조합장을 필두로 천지농협의 전 직원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군, 코로나 극복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신안군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속으로 단체헌혈 취소와 개인 헌혈자의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헌혈은 10일 신안군청 앞 광주전남혈액원 이동헌혈 차량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직원들과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하여 참가자의 발열체크와 손 소독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헌혈 차량에 시간대별로 헌혈 인원을 분산해 실시했다.

무안에 '황토골 마스크 특전사'가 떴다

면 마스크 2600배 제작하여 재능 기부

무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22일부터 재봉틀 동아리 회원 21명과 함께 황토골 마스크 특별함을 전하는 사람들(이하 황토골 마스크 특전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황토골 마스크 특전사 사업은 하절기용과 춘추용 면 마스크를 제작해 읍면 취약계층과 일선현장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은 마스크를 전달하고 이들에게 응원메시지와 함께 안부를 살핀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5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되었고 11월까지 마스크 2,600매를 제작하여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마스크 착용 운동도 함께 실시한다.

지난 3월에도 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마스크 제작 사업에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면 마스크 1,800매를 제작하여 배부했다.

김산 군수는 "마스크 제작이 힘든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봉사에 참여해주고 계신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마스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식중독 예방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요"

영광군, 59개소 위생점검

영광군은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세균증식이 활발해져 식중독 위험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올해 5월부터 식중독 걸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7월 한 달 동안 관내 유치원 · 어린이집을 포함한 집단급식소 5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수칙을 잘 숙지할 것을 홍보했다.

식중독 예방수칙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육류 조리 시 재료의 중심 온도는 75℃,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먹기, 과일과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100ppm)이나 식초 등으로 5분 이상 세척 한 뒤 충분히 헹구고 조리 후 60℃ 이상 또는 바로 식혀 5℃ 이하로 냉장 보관

손 씻기·익혀 먹기·끓여 먹기 등 3대 요령만 지켜도 '90%' 예방

해야 하며 조리기구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복날 삼계탕, 백숙 등 닭 요리할 때 캠필로박터 제주니 식중독 예방을 위해 장 볼 때 생닭과 다른 식재료가 닿지 않게 하고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생닭과 다른 식재료 자르는 칼 · 도마는 구분해서 사용하고 7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히고 생닭 만진 손은 비누로 30초 이상 씻고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 · 소독하면 된다.

김준성 군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3대 요령만 잘 실천하면 식중독을 90% 예방할 수 있으니 군민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